

가을 강은 슬프게 흥얼거린다

한 승 원



가을 강은 슬프게 흥얼거린다. 외기러기 같이 슬프게 울어 엔다. 싯누렇게 물든 들판을 굽이돌아 흐르는 강이 맑게 가라앉아 있다. 강심에서 울려오는 슬프면서 황홀한 소리를 나는 안다. 어찌 강뿐이랴. 가을이면 바다도 울고 산도 운다. 낙엽 지는 가로수 밑에 가도 그런 소리는 들린다. 풀밭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도 그런 소리는 들려 온다.

열망하는 자는 어디서든지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열망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는 늘 음악이 솟는다.

그 소리를 들으러 바다와 강과 산을 찾아간다. 가로수 밑을 거닐고 황달이 들기 시작한 잔디밭에 팔베개 하고 가을 양광에 젖은 채 하늘을 본다. 연가풍의 시와 담시풍의 시, 선시풍의 시들을 시집 한권으로 묶었다.

중국 여행 갔을 때 노래를 하라기에 그 시들 중의 하나에 즉흥적으로 곡을 붙여 불렀다. 다들 좋다고 한 번 더 부르라고 했다. 다시 불렀는데 그 곡이 달라졌다.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가웃하면서 아까 부르던 것하고 다른데 훨씬 좋다고 했다. 또 불러 달라고 했다. 들렸다. 세번째 불렀을 때는 듣는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 나도 울었다. 왜 울었을까. 물론 모두 술들이 얼큰해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그 시에 곡을 붙여 보았다. 여행 중에 불렀던 기억

을 더듬어 거기에 새로이 감미로움과 격정적인 맛을 더 곁들였다.

… 우리 다음 생에는 시계가 되자/너는 발 빠른 분침으로/나는 발 느린 시침으로
/한 시간마다 뜨겁게 만나자/순간을 사랑하는 숨결로 영원을 직조해 내는 우리/
다음 생에는 시계가 되자//그러고 한 천년의 강물이 흘러간 뒤에 우리/열두 점
머리 한가운데서 서로를 얼싸안고 숨을 멈추어 버린/그 시계/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영원을 부둥켜안은 미이라가 되자(먼지알 같은 들꽃들의 사랑을 모르고 어
찌/하늘과 땅의 뜻을 그 영원에 수놓을 수 있으랴).

괄호 속에 넣은 부분을 뺐다. 가곡풍도 발라드풍도 트로트풍도 아닌
곡이었다. 딸이 그랬다. 그것은 아버지풍이라고.

처음에는 아들 딸들이 통기공 하는 기타로 음정을 잡아 가고, 다음엔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취주악대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더듬어 읽곤
한 악보들을 서투르게 그랬다.

음정은 잡아지는데 머릿 속에 그려진 악상과 악보로 그려지는 박자
의 빠르기가 맞지를 았았다. 국문학을 전공한 아들 딸이 내 노래를 들
어보고 나서 박자 교정을 해 주었다. 음표들과 쉼표들을 일깨워 주었
다. 마침내 완성을 했고, 아들이 코드 지정을 해 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 주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원스럽고 참한 노래가
되었다. 나는 물론 아들처럼 부를 수 없었다. 내 식으로 불렀다. 아들과
내가 약간씩 다르게 부른 것들을 모두 녹음했다.

그 후부터 아침 식전에 물통을 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파른 산
을 오르내린다. 그것이 화성법이나 대위법에 알맞게 작곡이 되었든지,
전혀 엉터리로 되었든지 개념하지 않고 나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돼지 먹따는 듯한 소리로 부르기도 한다. 아내는 나보고 그 노래
에 미쳤다고 말한다. 그런 아내도 어느 사이엔지 그것을 배워 흥얼거
리곤 한다.

20, 30대엔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에 미쳐 있었다. 밥 먹으면서 듣고 글을 쓰다가 전축을 틀어 놓고 듣고, 미친 듯이 온몸으로 지휘자 흉내를 내 가면서 듣고, 젓먹이 아이들한테도 틀어주고 그랬다. 30대 후반부터는 판소리에 미쳤다.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이어폰으로 들었다. 판소리 다섯마당을 귀가 시릴 만큼 듣고 북을 치며 따라 불렀다. 술에 개차반이 되면 임방울의 흉내를 내 보기도 했다. 요즘 들어선 아이들이 듣곤 하는 발라드풍에 미쳐 있다. 내가 작사 작곡을 한 〈시계〉라는 노래 때문에 한 30년쯤 어려워진 듯싶다. 앞으로도 내 시들 중에서 알맞다 싶은 것들이다. 그렇게 곡을 붙여 불러보고 싶다. 내 시들에 내가 곡을 붙여 내가 부르는데 누가 무어라고 흥허물을 보라.

열망하는 것은 죄일 수 없다. 열망하면서 가을의 하늘처럼 강처럼 바다처럼 산처럼 소리를 내며 살아갈 터이다. 노래하며 사는 자는 늙지 않는다고 했다.

* 필자약력

- 1939년 전남 장흥 출생
-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 졸업
- 한국소설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이상문학상 수상
- 소설집 〈누군들 나그네가 아니라〉 〈앞산도 점점하고〉 〈안개바다〉 〈폐출〉 〈포구의 달〉 〈새터말 사람들〉 등과 **장편소설** 〈불의 딸〉 〈우리들의 돌담〉 〈포구〉 〈아제아제바라아제〉 〈흥부의 칼〉 〈동학제〉 **수필집** 〈허무의 바다에 외로운 등불 하나〉 **시집** 〈열애일기〉 〈사랑은 늘 혼자 깨어있게 하고〉 등이 있음.